10. 헤이리 考

10.1 의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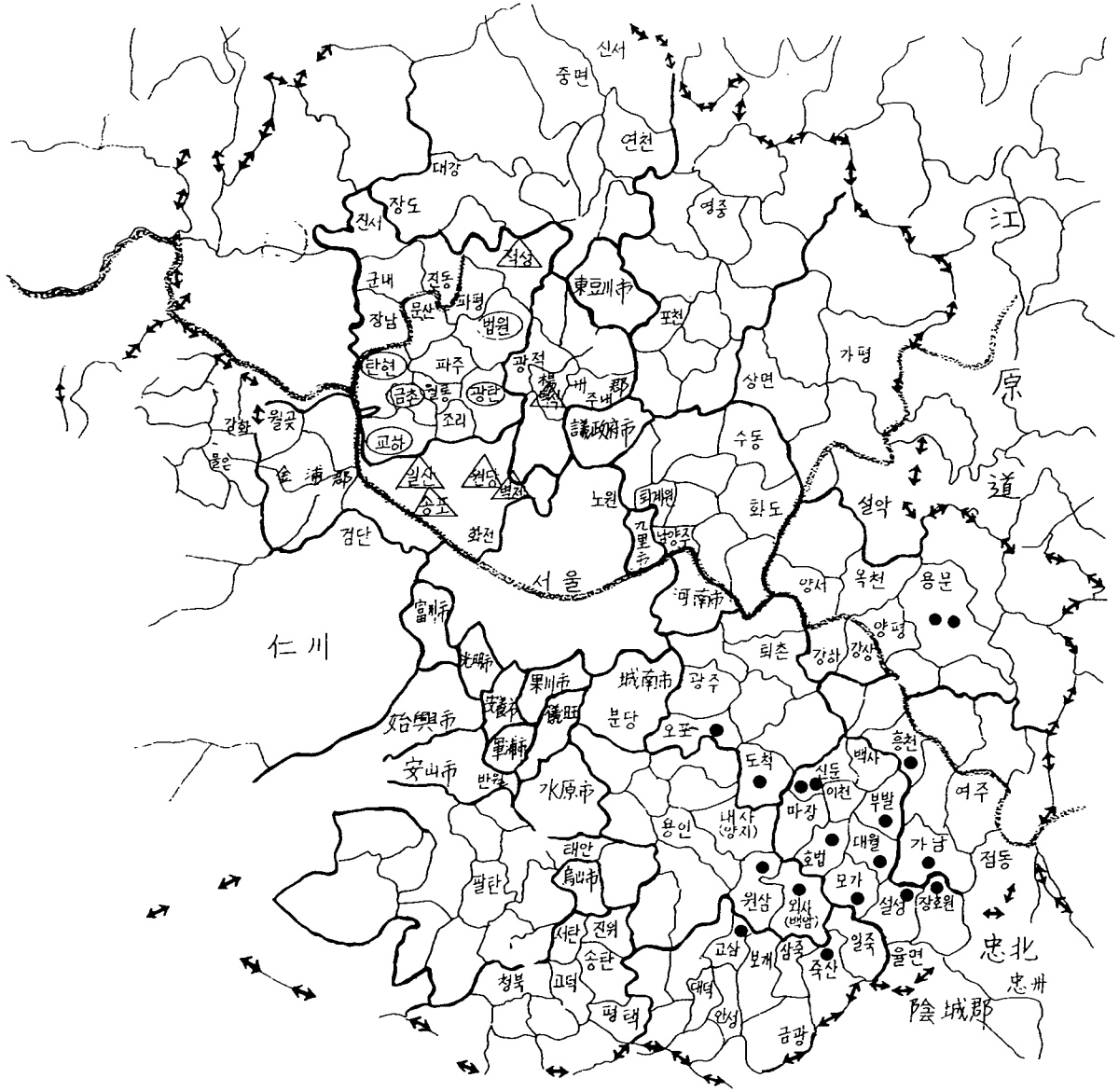
헤이리 소리는 파주지역에서 "서산 나무꾼 소리"라고 일컬어지는 멕받형식의 일노래로서, 논맬 때 또는 회방아 때에 불리운다. '헤이리'라는 곡명은 그 받음구에서 따온 학문적 명칭이다. 메김구 중에도 어허러리 소리·어러리 소리·어야 소리·헐헐소리 <파주 44, 67,173,175,199>, 어러리소리(고양시 일산)·홀노리 소리(고양시 원당)·홀호리(고양시 벽제)·훨노리(고양시 송포면 김사남)·훨러리(김사남)·놀노리 소래(고양시 김현규)·훠화소리(양주군 백석면)의 예가 있다. 그중에서도 '어러리소리'의 예가 여러번 있지만 이는 강원도에서 아리랑을 지칭하는 어러리와 혼동될 여지가 있다. 법원읍의 최태규는 "먼산타령"이라고 불렀다.

조리면 죽원리의 이형우(1936.남.토민)는 송추를 가리켜 '서산'이라 하는고로 송추의 나무꾼들로부터 시작된 노래일 것으로 보고 있다. 고양시 송포면의 김현규는 송추의 서산은 숲이 우거져 숯굽는 가마골로 유명하였다고 서산 가맛골 숯쟁이가 장가 간 민담 하나를 들려주었다.[16]

필자가 수집한 헤이리類 가운데서 메김구에 '서산' 또는 '나무꾼 소리'라는 노랫말이 나오는 例는 다음과 같다.

---

16) 서산 가맛골에 색씨를 못얻어 장가 못간 숯쟁이가 살고 있었다.
어느 대가집에서 딸 셋을 낳았다. 어느날 어린 딸 삼형제를 앉혀놓고 아버지가 "너희들은 누구 덕에 잘 살고 있느냐"물었다. 두딸은 "아버지 덕에 잘 먹고 살아요"라 대답을 했는데 셋째딸은 "내 덕에 먹고 삽니다"라고 했다.
딸아이들이 성장하자 두 딸은 잘 사는 집으로 시집을 보냈으나 셋째 딸은 가맛골 숯장사에게 시집을 갔다. 그는 가난하였기 때문에 집안에서 냉수 한그릇 떠 놓고 혼례를 치루었다.
새댁이 아침밥을 지으러 나가자 숯쟁이가 점심밥을 싸가지고 숯가마로 와달라고 부탁했다. 새댁이 숯굽는 아궁이를 가만히 들여다 보니 금덩어리 돌이 박혀 있었다. 그녀는 신랑에게 저녁에 집에 올 때 아궁이 돌을 꼭 가지고 오라고 일렀다. 숯쟁이는 아궁이를 헌다는 것은 생업이 달린 중대사였지만 겨우 장가를 든 색씨의 간청인지라 돌을 빼내어 지고 집으로 돌아갔다. 장날이 되자 새댁은 남편에게 돌을 담아 가지고 장터에 앉아 있으면 값을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터인 즉, 값을 얘기하지 말고 그냥 손님의 의향대로 달라고 하여 주눈대로 받아오라고 했다. 숯쟁이가 장에 가서 종일 앉아 있었으나 물어보는 사람이 없더니 날이 저물어갈 무렵에야 한 사람이 값을 물어보는 것이었다. 새댁이 일러주는 대로 했더니 손님이 이 돌을 지고 자기집 곶간에 운반해 달라고 하여 들어다 주고는 현금과 절수(切手)를 받아왔다. 절수는 읽을 줄을 몰랐기 때문에 얼마인지도 모르고, 새댁이 얼마나 받았느냐고 묻자 현금만 내 보였다. 그것도 거액이었지만 새댁은 이것밖에 안되느냐 또 받은 것이 없느냐고 캐 물었다. 절수는 엄청난 액수였다. 그들은 이 돈으로 대목을 불러 새 집을 짓고 부자가 되었다. 그동안에 친정과 내왕을 않았지만 부자가 되자 친정엘 다녀왔다. 부자집으로 시집갔던 언니 둘은 망했고 친정도 망해 버렸다. 친정아버지가 "너는 과연 네 덕으로 먹고 사는구나" 하셨다.



<도 14>
헤이리소리(파주형 ○, 고양형 △)와 동음연타 두마디소리(●)

<파주 67> ○ 오늘 해도 '서허 산'으루 기울었네
○ 어야소리는 '서산의 나무꾼 소린'데
<파주 68> ○ '서산 월릉 뽕나무 장수'야
<파주 173> ○ 어러리 소리는 '나무꾼'두 허구
<파주 199> ○ '지게꾼'도 그 노래를 한다네
고양시 일산 ○ 어러리 소리는 '나무꾼의 소리'다
고양시 벽제 ○ 홀호리 소리는 '나무꾼의 소리'다하
자진 놀노리 ○ 놀노리 소래는 1나무꾼의 소랠'세(고양시 김현규)

'나무꾼의 소리' 대신에 회방아 때는 '상두꾼의 소리'로 바꾸어 부르는가 하면 (<파주 173, 199>, 고양시 원당읍 송포면 김사남) 논맬 때는 '농사꾼의 소리' <파주 44>로 대체되기도 한다.

10.2 헤이리 소리의 종류

헤이리 류엔 파주형과 고양형 및 자진 놀노리가 있다. 후2자는 헤이리의 잦은 형에 속한다. 헤이리 소리의 출처지가 송추<도 14>의 서산이라면 그 인근의 양주군 백석면과 고양시에서 수집되는 고양형이 보다 고형(古型)이리라 생각된다. 그렇다면 파주형은 고양형이 파주에 전해진 뒤 좀 더 살을 붙이고 재창조되어 파주시 內에 전파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자진 놀노리는 고양형의 또 다른 변주형이다.

종류별로의 민요권과 받음구 및 음조직은 <표 9>와 같다.

파주형은 (메)와 (받)이 각각 3분박4박 4마디 씩인 반면에 짜른 헤이리는 3분박 4박 2마디인 경우가 일반이고 자진 놀노리는 4분의 4박 4마디 씩이다.

모두 곡의 흐름이 경쾌하다.

파주형의 메김소리 전반부는 그 받음소리 전반부를 인용하여 부른다.

<표 9>에서 보면, 파주형은 라선법(La), 라종지가 우세하다. 짜른 헤이리에 있어서는 가창자에 따라 La, Do, Sol선법이 나온다.

자진 놀노리를 제외한 짜른 헤이리 곡들은 여주군의 두벌 논매기소리<악보 161, 162, 164>와 ①받음선율의 첫부분이 동음연타인 점 ②받음구가 별 뜻이 없는 입말인 점 ③(메)와 (받)이 각각 3분박4박 2마디 씩인 점 등이 같다. 그러나 <도 14>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양곡(兩曲)은 전파의 중심권이 서로 다르며, 중간지대의 연결고리가 없고, 헤이리 곡의 출처는 송추의 서산이라고 일컬어지는 점, 여주군에는 동음연타 두마디소리 이외에도 '오하에이 오호호야' 등 또다른 형의 무의미한 입말로 된 노동요가 유행하고 있는 점 등에서 일단 兩曲은 구별된다.

<표 9> 헤이리 류의 종별과 받음구 및 음조직

종류	지	역	가창자	받 음 구	음 조 직	비고
파주형	파주	탄현면 금산	조병호	에 - 헤-헹/ 어허 허허이 어허 야/ 에 에, 에히 헤이리/로 호호 호호 야	La선법(라 종지) 搖: 레,미	<44>
			금산리 농요단	① 에 - 헤 헤/ 에 허이 어허 야/ 에 헤이,에엥 헤이리/노 호 오호야 ② 에 - 헤 헤/ 엉 허이 어허 야/ 에 헤이,에엥 헤이리/ 노 호 호 야	La(라)	12/8
			추교동	① 엥 - 헤 헤이/호 호이 오호 야앙 에 헤이,에 에이리/로 호 오호 야하 ② 에 - 헤 네/호 호이 오호 야앙 에 헤,에 헤이리/호 호 오호 야하	(받):Do+Mi(솔)	<45>
		조리면 죽원	이형우	허 헝 허 허/ 허 허이 허허 야하/ 에 헤 헤이리/ 로 호 호호 야	(메):La 搖:라,미	<67>
			이인동 이순남	어 허 허 허/ 허 허이 허허 야/ 헤 헤이 헤, 헤이리/ 로 호 호 야	(받):La(라) 搖:라,레	
		교하면 와동	황태순	훠 - 엉 / 어 허엉 어허 야하/ 에 이, 에, 헤이리/ 로 홍 오호 야	(메)α:Sol(솔) 搖:솔도 (메):La 搖:라,레	<68>
			조규태 김기동	워-허 허-어/ 훠 훠 어허 야/ 에 이 에 헤이리/ 로 호호 호오 야	(받):La(라) 搖:라	
		광탄면 용미	최영운	*(참고용)		<69,70>
		금촌읍 야동	정규붕	어 - 허 - / 어 허 허허 야하/ 에 헤, 헤, 헤리/ 호호 오 호 야	La(라) 搖: 라,레,미	<71>
				어 - 허 - / 어 허 어허 야/ 에 헤, 헤 헤리/ 노 오 오호 야	La줏대(라) 搖: 라,미	<72>
		법원읍	심상태 장영수	어 - 어 리/ 어 허엉 어허 야/ 에 헤이, 에 헤이리/ 노 호 호 야	(받):La(도)	<173> 회방아
		법원읍 갈곡	최태규	어 허 어 리/ 어 허 허어 하아/ 에 리, 에 리리/ 호 호 호 하	La(eh) 搖:라,도	<175③> 먼산타령
		법원읍 가야	메:이경춘 받:가야 사람들	허 허 허 리/오 호 호 야/ 에 헤이, 에 헤이리/ 노 호 호 야	출현음 : 솔라레미솔` 終:솔	<178④>

종류	지 역		가창자	받 음 구	음 조 직	비고
파주형	파주	탄현면 금산	추교전	에 – 헤 헤/ 에 허이 허허이 야하/	출현음: egabc` #d`# 終:e(但.끝을 g로 올림) 搖:egab	<187> 회방아
			조선환外 4인	에 헤. 에 허리. 노 호 호 야 에 헤 헤헤 헤/엥 허이 어허 야/ 에 헤, 에 허리/ 어 허 어 야		
짜른 헤이리	파주	적성면	유병직	허 – 허 이 / 허허 허리 허랴	(메)α:Do(레) 搖:미 (메):Sol 搖:솔라	<1996> 회방아.
			어유지리 노인회	어 허 허 이/ 에 헤이 어 랴	(받):Do(레) 출현음: 도레(미)솔(라)	<73> 보다 느린 속도
			유병직	훨 훨 훨 훨 / 훨 훠리 훨훠 랴	La(라) 搖:라,레	<73> 논맴
	고양	벽제읍 진밭	메:신천희 받:이원희	어 허 어 – /(어 어어) 에–,헤리 노 야	La(라) 搖:미	(받) 중간 (어 어어)를 생략하면 (메)와 同박자됨.
		일산 7리	김성배	호 호 호 호리/ 호 오호 호오 야	Sol(솔)	<73 > 과 같은 속도
		원당읍 식사	이금만	호 롤 호 롤 / 호로리 로호 로 아	(받):Do(도) 搖:도,솔	[한국의농요]제1집 증보판.
			정상문	훠 럴 훠 럴 / 훠러리 로훠 로 아	Sol(레) 搖:도	
		송포면 복건	김사남	훨 훨 훨 훠리/ 훠 허허 허허 야	Sol(솔) 搖:레	
		송포면 대화	김현규等 호미걸이 대화人들	놀 놀 놀 노리/ 놀 노리 노 야 (3분박4박 2마디) 1박은 M.M 50~55 허–어 허 /허 허 어 야/ 닐 닐 닐, 허리 /노 호 오 야 (4/4박 4마디) 1박은 M.M 75	Sol(솔) 搖:도 (1박의 속도가 놀노리보다 빠름)	현지명칭: 놀노리. <73 > 과 같은 속도 현지명칭: "자진놀노리"

종류	지	역	가창자	받 음 구	음 조 직	비고
짜른 헤이리	양주	백석면 방성	김인기	① 훨 훨 훠 리/ 오 호 호 하 ② 훠 헐 허 리/ 허 허오 허 하 ③ 훠 훨 훠 리/ 훠 훠 오 하 ④ 훠 훠 훠 리/오우 호호 호호 하	La(라) 搖:라,레,미	[한국의 농요]

<악보 161, 162, 164>는 도선법에 속하며, 그 받음구 예로는 "오 호 어 이/ 오호 호야 에헤 야" "어 허 허허 이/ 어 후야, 오호 야" "어 허 허허 이/ 어 허 어야 어허 야"가 있다. 헤이리의 받음구와는 달리 '리'字가 보이지 않는다.

10.3 파주지역의 헤이리 소리<파주 44, 45, 67~72, 173, 175③, 178④, 187, 199⑥, 73>

파주지역에서 수집한 헤이리 류는 적성면의 것<73, 199⑥>을 제외하고는 모두 파주형이었다. 파주형의 헤이리 소리는 파주지역에서만 나왔다. 적성면의 것은 짜른 헤이리에 속한다.

파주형의 메김구는 고정구+변화구로 구성됨이 일반적이다(<72>는 예외적으로 고정구가 없는 경우가 있다). 선율 4마디중 고정구가 전반부를 차지함은 전술하였다. 변화구에는 다음과 같은 재미난 예들이 있다.

<68> ○ "서산 월릉 뽕나무 장수야" "네 나무 한 동에 몇냥 씩이나 받느냐"

○ "문안 문밖 떡 장수야" "네 떡 한 개에 멧냥 씩이나 받느냐"

<173> ○ "옷집에 처녀가 시집을 가는데" "아랫집 총각은 목매달러 가누나"

○ "나 시집 가는 걸 애닯다 말고" "나 시집 간데루 달몸을 살려 오려마"

(달몸을 살러 오라는 말은 머슴살이라도 하러오면 되지않느냐는 뜻으로 생각된다)

○ "장안의 호걸이 다늙을 지라도" "장모님 딸을랑 늙지를 말어라"